

“게임, 오디오, 작곡... AI 체험해요”

지스트, <2023 대한민국 과학축제> 참가

- 국내 최대 규모 과학행사... 과기정통부·대전시 주최로 27일부터 4일간 개최
- 지스트, AI분야 흥미로운 연구성과 담은 체험형 부스 운영해 관람객과 소통

- 지스트(광주과학기술원, 총장직무대행 박래길)가 <2023 대한민국 과학축제>에 참가해 인공지능(AI) 분야의 우수한 연구성과를 선보였다.
 - <2023 대한민국 과학축제>는 1997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과학행사로, 첨단 기술부터 일상에 녹아있는 과학 원리까지 다양한 수준의 과학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. 올해는 ‘과학의 무한한 가능성을 만나다’라는 주제로 개최됐다.
- 지스트는 ▲감정 인식 테트리스 게임인 ‘Emo-tris(이모트리스)’(융합기술학제학부 김경중 교수), ▲개인화된 AI 기반 음성·음향 기술(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김홍국 교수), ▲인공지능 작곡가 EVOM(이봄)과 함께하는 음악을(AI대학원 안창욱 교수) 등 3개 부스를 마련해서 관람객이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했다.



▲ 관람객들이 감정을 인식하는 테트리스 게임을 즐기고 있다.

- 「Emo-tris(이모트리스)」 부스에서는 **사용자의 표정에 따라 블록의 종류와 속도가 달라지는 테트리스 게임인 ‘Emo-tris’를 체험할 수 있었다.** 테트리스 게임에 감정을 인식하는 AI기술을 접목한 게임으로 ‘Emo-tris’는 감정을 뜻하는 ‘이모션(Emotion)’과 게임 이름인 ‘테트리스(Tetris)’의 합성어다.



▲ 관람객들이 AI기반 맞춤형 음성·음향 기술을 체험하고 있다.

- 「개인화된 AI기반 음성·음향 기술」 부스에서는 신체정보와 귀 형태를 AI기반 솔루션으로 분석해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공간음향 오디오를 제공하는 기술을 보여줬다. 또, 잡음이 많은 환경에서 사람의 목소리만 분리해 이를 텍스트로 변환하는 기술과 미디어 속 유명 배우의 목소리를 사용자의 목소리로 변환하는 기술을 선보이는 등 흥미로운 콘텐츠로 관람객들의 주목을 받았다.



▲ 관람객들이 AI로 음악을 작곡하고 있다.

- 「인공지능 작곡가 EVOM과 함께하는 음악을」 부스에서는 표정을 감지해 감정을 분석한 후, AI 작곡 플랫폼 'MUSIA(뮤지아)'에서 감정에 걸맞은 분위기로 노래를 작곡해보는 특별한 체험을 제공했다.
- 박래길 총장직무대행은 “이번 행사를 통해 지스트가 지닌 AI 분야의 우수한 연구성과를 널리 알리고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”며, “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과학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.” 고 말했다.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전광역시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과 대전관광공사, 과학문화민간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행사는 4월 27일(목)부터 30일

(일)까지 대전 엑스포시민광장 및 엑스포과학공원 일원에서 진행됐다.